

국민의힘과 광주·전남·전북도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 호남권 3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정현 광주시장 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조

배숙 전북도당 위원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가 3개 시·도가 각각 10분씩 현안사업을 건의한 뒤 종합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군공항 범정부협’ 재가동을

광주시가 국민의힘에 광주 군공항 이전 정부협의체 재가동, 인공지능(AI) 2단계 신축 예산 면제 지원 등을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2·3일 ‘국회, 광주의 날’ 행사에 깊은 관심과 힘을 실어줘 감사하다”며 “광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대통령이 AI 2단계 사업과 미래차국가산단 그린벨트 해제 문제, 교통망 구축 등 여러 현안에 매우 긍정적인 의견과 답변을 주셔서 광주가 큰 힘을 받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예산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살피 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민·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 중단된 국무총리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운영 재개 등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주·전남·전북이 지난 7월 선언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에 힘을 모아줄 것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3개 시·도가 지방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했다”며 “고흥·세종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 호남 R E100산업단지, 호남 관광문화주간 개최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잘 살피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역 현안의 예산과 임박에 대한 건의를 듣고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민의힘이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이날 국민의힘에 주요 현안 10건과 국비 지원 사업 11건 등 총 21건을 건의했다.

특히 광주시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한 주요 현안인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교통인프라 신축 확보 ▲기후 위기

●광주시

AI 2단계 예산면제·호남 경제동맹 지원 제안
복합쇼핑몰 예정지 교통 인프라 확보 포함
현안 10건·국비 지원 11건 등 총 21건 건의

대비 영산강 먹는 물 활용 사업과 인공지능,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비 지원 ▲인공지능전환(AI) 실증밸리 조성 ▲GIST 부설 AI영재고등학교 광주 설립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순환경제체계 구축 ▲미래차 인지 부품의 표준 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기반 구축(신규) 등을 설명하고 대통령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의힘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이날 ‘팀광주 국회의원’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민·군공항 통합 이전 및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박선강 기자

앞서 광주시는 지난 2일 전국 최초로 개최한 ‘국회, 광주의 날’ 행사에서 ‘팀광주 국회의원’을 위촉했다.

‘팀광주 국회의원’은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배치되지 않은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민·군공항 통합 이전 등 국회의 전방위 협력을 이끄는 데 힘이 돼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25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민주당 차원의 ‘광주-전남-무안 대화의 장 마련’과 ‘통합이전 당론 채택’을 요청해 민주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는 등 민·군공항 통합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선강 기자

●전남도

신곡 예상 초과물량 40만t 시장격리 필요
SOC 1조원 이상 등 국비 확보 협조 요청
정책 4건·법률제도 4건·국고 12건 강조

전남도는 산지 쌀값 안정과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SOC 1조원 이상 확보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책 건의 4건, 법률·제도 건의 4건, 국고 건의 12건을 설명하면서 “최근 제감경기가 좋지 않고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대도의 전남 행복지대를 여는 데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지 쌀값 안정과 관련해, 김 지사는 “2023년산 전국 쌀 15만t 이상 재고 발생이 예상돼 신곡 산지 쌀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2024년산 신곡 예상 초과물량 40만t 시장격리 등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단 적기 공급 일환으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지정’, 고흥 우주산업 확장과 도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SOC 건설 등 현안 정책 과제 해결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정책 모델을 마련하거나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지원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혜택 도입,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률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무엇보다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SOC 확충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등 지역 핵심 사업을 계획 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전남 SOC 사업 1조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3천억원 이상 증액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립 김 신산업진흥원 건립 ▲케이(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026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 공급사업 및 화순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 ▲미래에너지 반도체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수출특화형 복합에너지 퓨처팜 MG 플랫폼 구축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2025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 등 현안 사업 반영 및 증액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영록 지사는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에 힘입어 지난 6월 전국 최대인 5개 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8월 말 완도-강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타 통과 등의 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간담회 논의의 사업이 전남 대도약을 위한 기폭제가 되도록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핵심 현안을 충분히 살피고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정 기자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남·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